

# ‘주무관도 참여한다’ 장흥군 내년 사업 발굴

##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보고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편백숲 마중길 사업 등 다양 기관수상 실적 24건도 성과

장흥군이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를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3분기까지의 군정 성과를 결산하고 4분기 주요업무를 점검하는 한편, 2025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논의에 무게를 두었다.

보고회는 업무관련 부서의 합동보고 방식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실과소장만 참석하던 기

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팀장과 일반직원들까지 참석하여 군수부터 일반직원에게 이르기까지, 군 행정의 전 구성원이 군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흥군은 먼저 올해 3분기까지의 성과를 결산했다. 국도비 및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총 41건이 선정되어 1372억원 확보 규모를 달성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328억원),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200억원), 관산읍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180억원),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97억원), 전관산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조성(80억원),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44억원) 등이 있

다. 군은 앞으로 4분기 동안 더욱 더 많은 국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열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총 24건의 다양한 기관수상 실적도 거뒀다. 주요 수상으로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축제 컨테츠 대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등이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 기관수상 등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산하 22개 실과소에서 부

서별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120여건을 수립했다. 또한 올해보다 변화된 군정을 이끌기 위해 12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

군은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오는 11월 김성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한 뒤 내년도 업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5년은 민선8기가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군정은 그동안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장흥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 ‘고민 커트 미용실’ 시범 운영 보성군,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보성군은 연말까지 보성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민 커트 미용실’을 시범 운영한다.

‘고민 커트 미용실’은 미용실을 방문한 군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하고 마음 건강 자가 검진을 통해 필요시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미용실이다.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9월 관내 미용실 5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고민 커트 미용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판 부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배포, 정신건강 선별 검사지와 보관 박스를 설치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태민 센터장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군민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군민 생활영역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성군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음 건강 주치의 상담, 외래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1-853-5500)로 문의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 노인 인권 및 안전 교육 공익형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고흥군은 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및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현장에는 공영민 군수와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이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공영민 군수는 “우리 고흥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장수 지역이다”며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가 최우선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만큼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고흥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고흥군 내에서 유일하게 3개 유형(공익형 1, 사회서비스형 3, 시장형 7) 11개 사업단(1755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의 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연말까지 사무실과 시장형 은빛 카페사업단을 이전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호응 광양시-린츠

광양시가 2024 광양-린츠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빛으로부터 8637(8637 FROM LIGHT)’를 연다.

이번 교류전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른스일렉트로니카 센터와의 공동 주최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은 10일까지 전시·상영될 예정이며 시간이 켜켜이 쌓인 재생 공간 특유의 아우라와 융합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예술창고 미디어관에서는 그림자를 이용해 증강현실을 구현한 문준용 작가의 작품 ‘헬로, 섀도!(Hello, shadow!)’와 이돈아의 작가의 작품 ‘단청’, ‘달항아리’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광양의 역사적 사건과 도시 곳곳의 건축 표면을 영상과 색채로 구현한 정정주 작가의 ‘발광하는 도시’는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사에서 전시되고 있다.

인서리공원 반창고에서는 역사가 쏟아낸 글자와 정보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는 이이남 작가의 ‘시(詩)가 된 폭포(Waterfall Turned into a Poem)’와 오선이 그려진 어항과 음표로서 기능하는 물고기의 속도가 스캐닝돼 실시간으로 자동 연주되는 이재형 작가의 작품 ‘기계즉흥곡’, 물을 마시려던 강아지가 실제 물이 아님을 깨닫고 달아났다는 김창겸 작가의 ‘Watershadow & Flowers 3’ 작품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예담창고에 전시된 수시 구스케(Susi Gutsche)의 작품 ‘트레이스 웨이스트(TRACEWASTE)’는 쓰레기의 경로를 관찰하고 시각화한 작품으로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창고 2층에서는 아른스일렉트로니카센터(AE센터)의 미디어아트 수상 작품(Ars Electronica Animation Festival 2023 on Tour)의 9개 작품이 상영 중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대전지역의 60~70대 어르신 240여 명이 교복을 입고 여수로 특별한 여행을 왔다. 여수시 제공

## “친구와 교복 입고”...대전 어르신들 여수로 수학여행

대전지역의 60~70대 어르신 240여 명이 교복을 입고 여수로 특별한 여행을 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여행은 대전의 한 여행사가 기획한 ‘추억의 교복을 입고 떠나는 여수 수학여행’으로 마련됐으며,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항일암과 오동도, 해상 케이블카, 크루즈 등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과 시설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으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과 교복을 입고 여행을 떠나게 되어 젊은 시절의 열정과 낭만이 다시금 차올랐다”며 “아름다운 여수의 풍광이 더해져 이번 여행은 정말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향우의 밤’ 성황

광양시는 지난 7일 호텔락희 연회장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 시민회, 재부산, 재광주, 재여수, 재순천 등 5개 지역 70여 명의 향우가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향우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향우의 밤’에는 각 지역에서 온 향우들 외에도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군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립합창단의 공연,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소개 영상 상영, 내빈소개, 국민의례, 환영 인사 및 화답 인사,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 기념 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2024 자랑스러운 광양인 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충희 한국대중음악박물관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만찬에서



지난 7일 호텔락희 연회장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 시민회, 재부산, 재광주, 재여수, 재순천 등 5개 지역 70여 명의 향우가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향우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광양시 제공

는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제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코믹마술 공연을 관람한 후 고향과 관련된 내용의 퀴즈를 풀어보며 고향에 대한 추억을 상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을 떠나 각지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광양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향우분들을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된 광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끼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향우분들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광양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